

익산시, 예산확보 국회 행

행감·28건 부의안건 처리기로

19개 사업 전액 반영건의, 예결위 의원초당적 도움 호소 국회상주반 본격 가동, '정치신에' 지역 의원 활약 기대감

익산시가 내년도 현안 사업 국가에 산 반영을 위해 국회 주요 인사를 방문하는 등 역대 최대액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 방문으로 국회의단체 첫 행보를 시작한다 이어 11일에는 국회 예산 관련 국회의원을 찾아 국회증액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정 시장은 먼저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수홍(기획재정 위원회), 한병도(행정안전위원회) 의원과 국회단체 추진전략을 논의한 후 정성호 예결위원장, 추경호 예결위원, 윤준병 예결위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영찬 예결위원, 양금희 의원 등 10여명의 의원을 차례로 찾아 시가 국회단체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19개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시의 국회단체 중점사업을 살펴보면 수습기간 지역주민의 숙원인 축산악취 해소를 위한 ▲왕궁현업축사 매입 사업 및 생태복원사업(총사업비 1,466억원), 환경피해 예방시설으로 국민의

환경권 보호 강화를 위한 ▲환경피해 치유회복센터 조성 사업(총사업비 340억원), 참출수 유출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폐기물의 안전이적을 위한 ▲익산폐석산불법폐기물처리사업(총사업비 799억원) 등으로 환경사업을 국회건의안 전방에 배치했다. 이로써 시의 시정철학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다이로움 익산'을 실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식품생태계 융복합을 통해 동북아 식품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총사업비 5,535억원), 백제왕도 익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인 ▲서동생가터유적정비사업(총사업비 194억원), 홀로그래프 산업 생태계의 안정적인 전주기 가치사슬 구성을 위한 ▲홀로그래프소재부품실증개발지원센터구축(총사업비 300억원) 등 경제·관광분야 사업을 중점 건의해왔다.

대형 SOC사업으로는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동시착공(2조 6,694억원),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 개설(3,500억원), 일본산

업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남산~연무 IC)(총사업비 1,874억원)등을 건의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각종 사업의 내년도 요구예산이 국회단체에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단계에서 제2대 총선을 통해 새롭게 입성한 지역 국회의원의 활약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수홍 의원(익산갑)은 국회 국토위·예결위 수석전문위원직과 사무차장을 역임한 국회예산 전문가로서 이미 정부 편성단계에서 다수의 불투명했던 예산을 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예산전문가로서 실력을 발휘했다. 국회심의단체에서도 지역 현안사업뿐 아니라 신규발굴사업까지 최대 예산 확보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낸지역대표 정치가로서 21대 국회의원 취임 전부터 지역의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환경과 경제관광분야 예산확보에 희망이 될 전망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를 11일부터 12월 21일까지 41일간 개최한다.

시의회는 11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군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 조례안 22건 등인 2건의 부의안건을 처리기로 했다.

이번 제234회 정례회에서는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추경과 내년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만 가지고는 정확한 감사가 될 수 없으므로 시민의 불편사항 제보를 받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펼칠 계획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배영원·김영자·김종신·송미숙·정지숙·조경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들 중 배영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급속히 추경대회 등 인기종목에 한해 제한적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 외에 야구, 양궁, 골프 등 다른 체육영역에는 정책적 관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각 체육영역에 대한 방대한 자료와 기록들이 무관심 속에 변질·왜곡·소멸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체육역사 정립을 통한 군산체육의 진보적 미래를 위해서 군산의 체육관련 인사들을 찾아내고 발굴하며, 자료를 모으고 연구할 수 있는 전문기관뿐 아니라 체육관련 박물관 또는 전시관 등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 군산의 체육정책을 제안했다.

김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학교밖 청소년은 2019년말 기준 38만명으로 연간 5만명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군산시의 경우 2017년 159명, 2018년 191명, 2019년 156명으로 전체학생의 0.5%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 문화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 일부 청소년만 지원받고 있어 지원 시스템의 한계와 개선 과제를 안고 있다며 세밀한 홍보계획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고위험시설 코로나19 선제적 검사 실시

군산시가 고위험시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종사자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안전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산시 보건소는 고위험시설(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의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보건소는 코로나 19 선별적 집단 발생상향에서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고 고위험시설 및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고위험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해 보건소는 빈틈없는 전수 검사를 위해 보건소 내소검사 및 현장 방문검사 근무반을 편성해 일정별로 검사를 실시한다.

군산시의 고위험 대상시설은 요양병원 9개소, 요양원 32개소, 주간보호센터 39개소, 정신의료기관 1개소, 정신재활시설 3개소로 전수검사 대상은 총 3,500여명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다이로움' 1500억원 돌파 눈앞

도내 최초 인센티브·페이백 소상공인 매출증대, 시민 호응

익산시가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발행한 지역화폐 다이로움이 발행액 1,5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도내 최초로 시행된 지역화폐 인센티브와 페이백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11일 시에 따르면 10일 현재 익산다이로움 회원 가입자 수는 7만1,845명, 발행액은 1,490억원을 달성했다. 발행 규모는 당초 1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됐다.

도내 최초로 시행한 지역화폐 인센티브와 페이백도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익산다이로움의 골목상권 이용 확산과 소비촉진을 위해 개인 인센티브 적용 구매한도 내에서 구매(충전) 시 10% 즉시 추가적립, 사용액의 10%를 다음달 포인트로 돌려주는 페이백 특별이벤트를 과격적으로 시행해 소

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시민들의 가계에 보탬이 되고 있다.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줄 바라는 소상공인의 건의를 반영해 경기침체 극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달부터 2개월 동안 페이백을 연장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집계된 전방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 코리아에일페스타 행사와 연계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가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발행한 지역화폐 다이로움이 발행액 1,5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군산시 도시재생과, 적극행정으로 예산절감

군산시가 적극행정으로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구 철도부지 사용료 요율을 인하 시키며 예산절감을 이룩해 왔다.

시는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 내 국가철도공단 철도부지의 사용료 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는 조정서를 송부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재산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국유재산 사용할 경우 감면규정이 있음에도 내부규정을 틀어 사용료를 감면해주지 않자 이를 해소하고자 기획재정부, 법제처에 법령해석 및 유권

해석을 요청했지만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내부규정을 틀어 사용료를 인하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다가 군산시의 적극적인 설득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회의에서 합의내용으로 조정이 확정됐다.

이로써 시는 연 7,400만원의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고 향후 20년동안 14억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대 4단계 BK-21사업 미래인재양성사업 선정

군산대학교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BK-21사업 미래인재양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사업명은 '재민급에너지 인프라 건설교육연구팀'이고, 토목공학과 김형주 교수, 정승우 교수, 박대욱 교수와 함께 대학원생 25명이 참여한다.

사업 기간은 2027년 8월까지 84개월 동안이며, 사업비는 국비, 대학산학협력지원금, 군산시 대응자금 등을 포함해 총 24억 원에 달한다. 본 연구팀은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재생에너지 개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의 구축, 군산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지평도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과학 기술적인 인재양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업단은 친환경 에너지건설 전문지식을 갖춘 산학 R&D 중심의 문제 해결형 인재양성, 시대 흐름에 적극 대응하는 재생 에너지 인프라 전문 융복합형 글로벌 인재양성, 새만금 신산업과 연계한 수료자 중심의 산학 R&D 연계형 창의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익산소방서, 삼기초 학생 소방안전체험 교실 운영

익산소방서 금마119안전센터는 제73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11일 삼기초등학교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소소심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소소심'이란,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CPR), 완강기 사용법을 대중의 주목도를 높이고 친숙함을 주기 위해 줄인 말로, 실행법이 쉽고 간단해 화재 등 재난상황 시 피해와 사망률을 낮출 수 있어 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교육 전 2m 이상 학생간 거리 두기,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합영여중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체험교실은 ▲올바른 119 신고요령 ▲선 대피 후 신고 강조 등 피난대피훈련 ▲소화기 사용 요령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순으로 진행되었다.

익산=장양원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